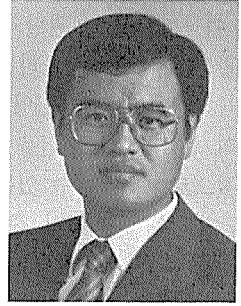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방안(I)



김 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장

소프트웨어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유형적 재화의 생산에서 지식과 정보의 처리·활용으로 이동함에 따라 미래 정보사회의 초석이 되는 핵심산업이며, 인터넷의 대중화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세계적 실현과 함께 미래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한 중요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90년부터 95년까지 세계 연평균 성장률 15%, 국내 성장률 32%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2000년에는 세계시장 규모 5,140억 달러, 96~2001년간의 세계성장률 11.1%가 예상되는 고성장 산업일 뿐 아니라, 지식집약적, 자원절약적, 환경친화적 특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미래 정보사회의 주도권 장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법정부적인 지원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21세기 산업발전을 주도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예측, 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STEP 2000이나 SOFTTEC 2015 등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육성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되고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94년말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정보통신부는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등에 분산되어 있었던 소프트웨어 업무를 통

합·이관받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의 중요 정책을 보면 먼저 96년 4월에 서울 구의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우수 신기술 사업의 지원, S/W 개발비 산정기준 정비 등 창의적 기업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 S/W 업체들에게 고가의 장비 및 기술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화 촉진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1,3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 수요 예보제를 실시하여 S/W개발업체의 기술개발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해주고, 수요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기술 발전이 갈수록 급격해지고 상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이다.

반면에, 소프트웨어의 타산업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질 뿐 아니라, 새로운 매체의 가속적 발전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육성했을 경우 세계시장 진출

도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어, 현재 우리의 S/W산업 현황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조업 등 고비용, 저효율의 심각한 장애요인을 부담하게 된 산업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사업의 핵심 증추산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획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통신부는 S/W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S/W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2001년 까지 선진국 수준에 진입시키는 것이며, 추진전략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세계화와 수출산업화를 지향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시스템 통합·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전략적인 중점육성 분야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계획의 세부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술개발로서, 기술개발투자 확대·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확대·기술 및 정보유통 촉진·해외선진기술 흡수·개발기술 산업화 촉진 등이다.

둘째는 인력양성으로서, S/W장학기금 설치·정보통신전문 대학원 및 기업사내 기술대학 등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병역특례 확대, 경시대회 등이 있다.

셋째는 창업지원 및 사업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창업 보육센터 및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설치 확대·S/W 적정대가 보장·S/W 벤처 투자조합 결성·기술 담보제도·프로그램 저작권 위탁 관리제도 등이 시행될 것이다.

넷째는 내수시장 활성화이다.

이에는 수요 예보제 확대·유통체계 개선·불법복제 단속강화·입찰구매 제도 개선·공공부문 수요창출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는 해외시장 개척으로서, 해외시장개척기금 설치·상설 수출지원기구 설치·수출관련제도 개선·해외홍보 강화·해외기업 유치 촉진 등이다.

소프트웨어 장기 종합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21세기 수출주도 산업으로 부상하고,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동계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97년 부터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정보사회에서는 물질 보다 정보의 소유와 자원화가 경쟁력의 관건이 됨은 이미 전세계가 인식하고 있다.

우리부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치열한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